

외래어 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Loanwords

한유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992LSG16@mm.ewha.ac.kr

You Sun Han, Dept. of Lib. & Info. Sci.,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학문이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한 새로운 개념이 외국에서 우리 나라로 들어오면서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인 외래어가 생성된다. 학문의 발전과 교류가 점차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외래어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외래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외래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외래어의 정의와 표기법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외래어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 서론

외래어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문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배우려는 학계의 태도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교류가 자유로와 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 새로운 개념을 우리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끊임없이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외래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이 현학적인 이미지를 과신하는 태도, 새로운 언어에 대한 호기심과 유행 등이 외래어 증가의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외래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외래어의 정의와 외래어 표기법 및 문제점, 관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외래어의 정의

외래어의 정의를 보면 외래어의 범주가 뚜렷하지 않아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외래어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에서는 “우리 나라 말에 들어온 외국말”이라 정의하고 있고, 『국어대사전』(금성 1996)에서는 “외국어가 국어 속에 들어와서 국어처럼 쓰이는 말. 특히, 한자어를 제외한 여러 나라 말이 국어화한 것”이라 정의한다. 이춘경(1973)은 “...일시적으로 외국어를 자기 나라말과 혼합하여 사용함은 곧 외국어라 하며 그 민족 전체가 장구한 시간 동안 사용하여 한 개의 실용어가 되어버린 말은 외래어...”라고 정의하였으며, 최영섭(1971)은 “타국의 언어 체계 속에 있는 언어가 자국의 언어 체계 속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사용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언어”라고 정의하였다. 이을환(1973 재인용)은 외래어를 다음과 구분하였다.

외래어 | 귀화어-고유어와 다름없이 완전히 동화된 語
| 차용어-외국어 의식이 남아 있는 語
| 외래어-생생한 외국어 느낌이 드는 語

그는 외래어를 광의의 외래어와 협의의 외래

어의 구분없이 통상적으로 쓰이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문창경(1985)은 외래어 기준을 6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국어의 일부이어야 하며 둘째, 근원이 외국어이며 셋째, 단위는 단어이어야 한다. 넷째 음운, 형태, 의미면에서 원어와 다소 달라지고 다섯째,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며 여섯째, 쓰여온 역사가 오래되어야 외래어라 규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래어란 외국어가 자국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면서 그 원모습이 변하여 국어의 일부가 된 단어”라고 정의하였다. 김민수(1973)는 외래어와 외국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다음과 같은 귀화과정을 제시하였다.

- 1) 귀화 이전의 단계로 외국어로서의 발음이나 뜻이 순 외국어의 모습대로 쓰이는 시기이다.
- 2) 귀화 시초의 단계로 외국어라는 의식이 뚜렷하다.
- 3) 귀화 도중의 단계로 외국어가 발음이나 형태의 어떤 점이 국어적인 것으로 변화한 모습이 생기고, 차차 익숙해진 채 두루 쓰여 생소한 의식이 없어진다.
- 4) 귀화 탈기의 단계로 외국어라는 특징이나 의식조차 없어지고 우리말로 여기게 된다.
- 5) 귀화 완료의 단계로 국어와 아주 융합되어서 고유어와 구별을 할 수 없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견해를 정리해 보면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여와 국어의 어휘체계에 수용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아 통용되는 어휘로 정의할 수 있다. 외래어는 크게 발음 차용어(發音借用語)과 의미 차용어(意味借用語)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음차용어는 외국어의 발음을 한글 자모로 표기하는 것이고 의미차용어는 외국어의 의미를 고려하여 이를 우리말에 맞게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3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은 외래어를 발음차용 하는 경우 사용되는 표기의 기준이다. 그 목적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의 표기를 정리하고 통일

하는 한편, 새로 유입되는 외국어 단어에 대해 유효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찍이 외래어 표기법을 제정하여 시행해 왔다.

외래어 표기법은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제 60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 있다.

- (1) 한글맞춤법통일안(1933)의 외래어 표기규정
가. 제60항 외래어를 표기할 적에는 다음과 조건을 원칙으로 한다.

- 나. 1.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다. 2. 표음주의를 취한다.

이 규정을 기본으로 조선어학회에서 1940년에 좀 더 세부적인 규칙을 추가하여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1986년 외래어 표기의 기본 골격인 문교부 고시 제85-11호가 발표되었고, 1992년 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1995년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8을 통해 동부권 언어와 북부권 단어의 표기 원칙 및 세칙을 보완·보충하였다. 앞의 세 고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국립국어연구원(1995)의 『한국어문 규정집』의 외래어 표기법이다. 이는 외래어 표기법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주고 13개의 표기 일람표와 15개의 언어의 표기 세칙 및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을 제공한다. 외래어 표기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2) 외래어 표기의 기본원칙

- 가.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나.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다.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으로 쓴다.
- 라.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를 따로 정한다.

몇 차례의 개정을 통해 외래어 표기법이 점차 발전되어 왔지만 이것은 기본 원칙일 뿐 모든 경우를 고려한 세부규칙은 아니다. 또한 외

래어 표기법이 현지음을 잘 반영하지 못하거나 우리 나라 말로 표기하는데 어려운 어휘가 많아 표기법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4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

기존의 외래어를 살펴보면 일관성 없이 표기되어 다음과 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발음차용어에서 발생하는 외래어 표기 문제이다. 예를 들어 'laser set screw'라는 용어를 발음차용으로 외래어를 생성할 때, 'laser'는 '레이저', '레이저'로 쓰일 수 있고 'set'은 '세트'와 '셋'으로 표기되며 'screw'는 '스크루우', '스크루', '스크류'로 표기될 수 있으므로 'laser set screw'는 12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원어를 축약하여 영문 두문자(頭文字)로 표기한다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있어 표기에 일관성이 없다.

예) vacuum toilet system VT시스템

cab-over-engine truck 캐브 오버 트럭

둘째, 의미차용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같은 원어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예) mechanical charging 기계 장입

mechanical clamping 기계식 조임

mechanical classifier 기계적 분류기

또한 원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경우와 의미차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예) one-pipe system 단관식, 1관식

셋째, 발음차용과 의미차용이 혼합된 형태의 문제점이다. 외래어가 생성되면서 우리말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 Pons-Brooks 폰스브룩스 혜성

또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외래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 polypeplexer TR상자

cholangiogram 담관X선상

그리고 단어를 연결해 주는 '-'를 외래어에서

그대로 표기하는 방식과 삭제하는 방식이 공존한다.

예) model-predictive control 모델 예측 제어

Langmuir-Hinshelwood kinetics

랭미어-힌셸웁(반응)속도

위에서 살펴본 일관되지 않은 외래어 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기존의 외래어 표기 검색의 재현율을 감소시킨다. 특히 외래어가 하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경우 구성 단어가 각자 이형표기가 있다면 표기되는 방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의 개념에 대해 다른 외래어를 사용하게 되어 각 학계간의 협력과 연계성이 결여된다.

5 외래어 관리 방안

외래어는 학문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진 지금 외래어는 더 이상 순화해야 할 대상만은 아니다. 외래어를 일관적으로 표기하고 사용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외래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리 방법을 병행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외래어와 새롭게 들어올 외래어를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외래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래어 수집을 하여야 한다. 각 학문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외래어를 수집한다. 또한 하나의 외래어에 해당하는 모든 이형도 수집하며 이전의 문헌에는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외래어까지 수집한다.

외래어를 수집한 이후에는 하나의 개념에 체계를 설정하고 대표표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의와 용어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소집하여 가장 적절한 대표표현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표표현 이외의 모든 이형표

기를 위해서 전거통제 파일이 필요하다. 전거통제는 어떤 목록이 이미 목록되어 있거나 나중에 목록될 수 있는 유사한 기입과 혼동되지 않고 유일한 것이 되도록 접근점으로 선정된 모든 기입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외래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개념에 대한 이형표기를 모아줌으로써 검색의 재현율을 높인다.

기존의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철저히 따르지 않은 것이 많으며 학계간의 협의 없이 하나의 개념에 대해 각자의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있지만 새롭게 생성되는 외래어는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새로운 개념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즉시 표준표기를 결정해야 한다. 1999년에 문화관광부에서 표기 규정에 맞는 외래어 생성 및 외국어 한글 표기를 위해 '외래어 및 외국어 한글 자동 표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표기의 통일성을 꾀하여 정보교환의 혼란을 막고 공식성을 부여하고자 설계된 프로그램이다.

그 나라의 문자표기는 그 나라의 말을 반영한 것으로 그것을 통해 발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언어에 따라 다른데 문자표기와 발음이 규칙적으로 대응하는 언어를 직접전사 방식이라고 하고 그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을 발음기호를 통해 전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표1>은 『문교부 편수자료 II-2 외래어 표기 용례(지명·인명)』의 용례로 나와있는 자료들을 통해 검증한 정확도이다. <표1>에서 직접 전사방식의 경우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100%에 가깝게 정확하였고 문자표기와 발음간의 규칙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발음기호 한글 전사 방식에서는 직접 전사하는 것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전사방식	직접전사방식		발음기호 → 한글전사방식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	독일어	프랑스어
정확도(%)	99.34	92.82	73.32	60.00

<표1> 외래어 및 외국어 한글 자동표기 정확도
'외래어 및 외국어 한글 자동 표기 시스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어와 중국어는 『문교부 편수자료 II-2 외래어 표기 용례(지명·인명)』에서 입력방식이 모두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증대상에서 이용될 수 없었고, 영어도 역시 발음기호와 표기용례가 함께 제시되어 있지 않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새로운 외래어를 수용할 때 외래어 자동표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표준화된 용어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외래어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작업 없이 자동 변환 시스템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발음기호를 한글로 전사하는 방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형태소 분석과 다양한 입력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결론

외래어의 정의와 외래어 표기법과 문제점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직까지 외래어 관리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이어서 외래어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급증하고 있는 외래어의 수를 감안한다면 외래어 표준화 과정과 관리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주. 1995. 『외래어의 규정표기와 관용표기의 차이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김민수. 1973. 『국어정체론』. 서울: 고려대출판부.
 김진희. 1997. 『영어 외래어의 음운현상과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문화관광부. 1999. 『외래어 및 외국어 한글 자동 표기 시스템』. 서울.
 시정근. 2000. 전문용어와 외래어 표기법. 『전문용어연구』. 서울: 흥릉과학출판사.
 이상권. 1996. 『외래어 표기와 사용실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